

# 흑삼 사료, 반려동물 건강에 큰 도움

### 농진청, 반려견 면역력 높일 수 있어 비피도박테리움 롱검 등 이용 유제품도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반려견 건강에 도움을 주는 유제품과 흑삼을 활용한 기능성 사료를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국산 재료를 활용한 기능성 사료 개발은 수입 사료가 70%(금액기준)를 차지하는 사료시장에서의 국내 반려동물 사료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의의가 있다.

농촌진흥청은 국립축산과학원이 선별한 비피도박테리움 롱검(KACC91563)과 반려견 분변에서 분리한 유산균(락토바실러스 투테리)을 이용해 장 건강과 아토피에 효과가 있는 반려견 유제품을 개발했다.

연구진은 비피도박테리움 롱검(KACC91563)을 함유한 치즈와 롱검 배양 분말에서 비피도스균 수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것을 확인했다.

치즈는 1g당 100만 마리(10<sup>6</sup>CFU/g)가 4주 이상 유지됐으며, 유산균 분말은 1g당 10억 마리(10<sup>10</sup>CFU/g)가 12개월 이상 유지됐다. 해당 유제품을 반려견에게 먹인 결과, 장내 유해 세균인 푸소박테리움(Fusobacterium)과 콜린셀라(Collinsella)는 줄었고, 유익균인 비피도박테리움 롱검이 2배 정도 늘었다.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는 증상과 가려움증이 줄었으며, 혈액에서



암세포와 바이러스 감염세포를 공격하는 세포(NK-cell)의 활력이 8.3%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또한,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

학원에서 개발한 흑삼 분말을 이용해 반려견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기능성 사료를 개발했다.

연구진은 흑삼이 염증을 촉진하는 산화질소 생성 효소(iNOS)와 콕스-2(COX-2)의 발현을 감소시켜 항염증 기능이 있음을 밝혔다.

흑삼 함유 사료를 먹인 반려견은 면역 활성화에 관여하는 인터페론 감마(IFN-gamma)가 증가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연구팀 김동훈 과장은 "이번 연구가 수입 사료에 대응해 국내 사료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국산 기능성 반려견 사료 관련 총 9건의 특허를 출원했으며, 산업체에 13건의 기술이전을 실시해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NH농협 고창군지부는 3일 고창군청과 농협 군지부, 군청출장소 객장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졸업식과 입학식 등 행사 취소로 관로가 막혀 피해를 입고 있는 전북 관내의 화훼농업인 돕기 꽃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 어려운 화훼농가 위한 '꽃 나눔'

### 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

NH농협 고창군지부(지부장 진기영)는 3일 고창군청과 농협 군지부, 군청출장소 객장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졸업식과 입학식 등 행사 취소로 관로가 막혀 피해를 입고 있는 전북 관내의 화훼농업인 돕기 꽃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화훼 농가의 출하시기에 맞춰 시군

별로 분산 실시되고 있는 전북 농협의 시군별 릴레이 화훼소비촉진 행사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날 행사에서 농협 고창군지부 진기영 지부장은 농업인이 정상되어 생산 한 프리지아와 튜울립 1,200송이를 객장방문 고객과 지역 주민에게 나눠주고 농협의 화훼농가 돕기 꽃 소비촉진에 동참 해 주실 것을 호소했다.

/김윤상 기자

## 농협은행 전북본부, 코로나19 피해업체 확대 지원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3일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실시했던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지원 특별보증대출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출지원대상도 모든 업종으로 확대(보증 제한업종 제외)되며, 업체당 최대 7천만원이 지원된다. 대출 기간은 최대 5년으로 분할상환은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며, 일시상환은 1년으로 최대 5년까지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금리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2.61% ~ 2.91%가 적용되고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담보는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전액보증서로 보증료는 0.8%이다.

한편, 긴급 금융지원 외에도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농협은행 일 반자금을 기업별 5억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1.0%(농업인 최대 1.7%)이내의 금리우대와 최장 12개월의 이자납입 유예가 가능하다.

장기요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길 바라며, 다양한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경제가 조속히 정상으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지역은행으로써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한전 전북본부가 지난 2일 헌혈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고자 '사랑의 헌혈' 나눔 행사를 가졌다.

## '사랑의 헌혈로 코로나19 극복해요'

### 한전 전북본부, 캠페인 벌여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단체 헌혈이 잇따라 취소된 가운데, 한전 전북본부는 지난 2일 헌혈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고자 '사랑의 헌혈' 나눔행사를 가졌다.

한전 전북본부는 이날 행사에서 "범 국가적인 위기 극복과 지역사회에 대한 이웃사랑 실천으로 세상에 빛을 잇는 사람이란 슬로건 아래, 대표 공기업으로서 50여명의 직원들이 솔선 수범 헌혈에 나섰다.

이번 행사에서 확보된 헌혈증서는

백혈병소아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기부할 예정이다.

이경섭 전북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하루 빨리 극복하는데 앞장서고 따뜻한 생명 나눔의 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 전북본부는 전주를 시작으로 남전주, 익산, 군산 등 15개 지사를 대상으로 13일까지 자발적으로 "사랑의 헌혈" 파도타기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 전북대병원, '국민안심병원' 지정 5일부터 운영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코로나19의 감염 불안을 덜어내고 보다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돼 5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환자를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의 모든 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하도록 해 코로나 19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병원 내 감염 위험으로부터 환자 및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전북대병원에서는 국민안심병원 운영에 따라 병원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에 대해 병원 진입 전에 호흡기증상, 발열, 의사환자 해당여부를 확인한 뒤 호

흡기 환자의 외래 진료구역을 비호흡기 환자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게 된다.

호흡기환자는 일반 환자와 동선을 완전히 분리해 건물 밖으로 돌아서 호흡기전문진료센터 출입구를 통해 외래 및 입원 진료를 받게 된다. 호흡기전문진료센터는 모든 구역과 분리된다.

전북대병원은 이번 국민안심병원 운영에 앞서 전담감염관리팀인 감염관리실을 주축으로 △방문객 전면 통제 △출입구 제한 및 순세정제 및 위생용품 비치 △발열감지기 도입 △선별진료소 운영 등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을 해왔다. /김윤상 기자

## 2월 도내 소비자 물가지수 105.59... 전월대비 0.0% 보합

### 코로나19 영향 일부는 하락

지난달 전북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코로나19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으며 전년 동월대비 상승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대부분 항목이 하락했다.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가 3일 발표한 '2020년 2월 전북지역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2월 도내 소비자물가지수는 105.59로 전월대비 0.0% 보합을 보였으며, 전년동월대비 1.2% 상승한 흐름을 보였다.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보합세로, 설 명절 끝에 찾아온 비수기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감소해 무(-33.5%), 상추(-21.7%), 깻잎(-27.1%) 등 농산물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국제LPG 가격이 폭등으로 자동차용LPG는 7.8% 상승했으며, 자동차보험료(4.4%), 공동주택관리비(3.6%)도 올랐다.

신선식품지수도 전월대비 1.0% 하락했는데, 딸기는 -26.5% 급락했으며 신

선개류만 전월대비 2.1% 상승했다.

지출목적별 동향을 살펴보면 전월대비 주택·수도·전기 및 열료는 0.7% 상승했으며,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도 0.4% 올랐다. 반면, 코로나19 여파로 바깥출입을 극도로 꺼리면서 오락 및 문화(-1.2%), 교통(-0.6%) 부문은 하락했다.

코로나19가 호흡기 관련 질병으로 분류되면서 공기청정기 수요도 전월에 비해 22.5%나 급증했으나 단체활동 등이 제한 받으면서 해외단체여행비는 -5.8% 줄었다. 다중이 모이는 행사 자체가 줄어 취소되면서 이와 관련된 생과 판매도 -12.2%나 줄었다.

바깥 출입에 제약을 받으면서 직장인들의 구내식당식사는 전년동월대비 6.5% 늘었다.

품목성질별 동향에서도 상품은 전월 대비 0.1% 하락했는데, 농축수산물들은 수요 감소로 전월대비 0.6% 떨어졌으며 공업제품은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을 받아 약보합세를 보였다. /김윤상 기자



###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